

# 스웨덴과 한국 보육시설의 질과 어머니 만족도\*

## Quality of Childcare Centers in Sweden and Korea and mothers' satisfaction

호서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한유미\*\*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권정윤\*\*\*

Department of Child studies, Hoseo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an, You-M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 Kwon, Jeong-Yoon

---

### 〈Abstract〉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quality of child care centers in Sweden and Korea and the mothers' satisfaction of each center. In this study, the quality of 27 preschools in Sweden and 24 child care centers was evaluated by external evaluator using the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ECERS). A total of 436 Korean mothers and 197 Swedish mothe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regarding their satisfaction of their child's attending child care cent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quality of Swedish preschool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Korean child care centers. The quality of Swedish preschools tended to be good whereas the quality of Korean child care centers was somewhat minimal. Specifically, the category of 'Furnishings and display for children' was the highest score in Swedish preschool, however, the category of 'Adult needs' was the highest score in Korean child care centers.

The mothers' satisfaction of the center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countries. The Swedish mothers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 close location of preschool but Korean mothers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However, both mothers in two countries were less likely satisfied with the facility equipment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cultural and child care program differences further.

---

△주요어(Key Words) : 보육시설(Childcare center), 질(Quality), 보육 만족도(Childcare satisfaction), 스웨덴(Sweden)

## 1.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급격하게 증가한 보육수요를 감당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CS2001).

\*\* 주 저 자 : 한유미 (E-mail : hanyu@office.hoseo.ac.kr)

\*\*\* 교신저자 : 권정윤 (E-mail : jeongyunik@hanmail.net)

하기 위해 양적 팽창 위주의 보육정책을 실시한 결과 보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수많은 보육문제를 초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4%를 차지하여 보육사업이 민간의존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보육시설들의 보육 수급 불균형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이옥, 2000) 시설들 간의 과잉 경쟁을 유발하여 파행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그 외의 가정에서는 보호자가 보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 원

칙으로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서문희, 2001). 이외에도 많은 보육시설들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차용하고 오후에는 외부 강사에 의한 특별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과도한 특별활동은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결국 보육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유희정·이옥·서문희·윤선영·최영신·강정희·주재선·이미화, 2003) 부모들의 보육비에 전면 의존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부모들의 특별활동 실시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나라 보육의 질 향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보육의 질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통해 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보육을 주로 민간 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이러한 보육시설의 질 관리 표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평가 인증제는 바람직한 수준의 보육의 질, 규정하는 표준을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의 평가 및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소비자, 즉 부모의 권리 보호에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이옥, 2002).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과 더불어 공보육 제도를 발달시킴으로써 양육의 사회화를 실현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취업모의 자녀(1-5세)에게도 보육의 권리를 부여하고, 4-5세의 모든 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보육료 상한제(소득의 1-2%이내)를 실시하여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The Sweden Institute, 2002). 또한 부모의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주의 보육이념이 확립되어 있으며, 개인 및 가족, 사회, 국가 전체가 아동의 양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스웨덴 정부는 보육비용의 80%를 부담하고 있다(Gunnarsson, Korpi, & Nordenstam, 1999).

스웨덴의 보육시설은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 보육시설이 주종을 이룬다. 스웨덴은 공립 보육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립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질적인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높은 보육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기혼여성 취업률이 거의 80%에 근접한 양성평등 국가로서 직업노동뿐 아니라 자녀양육 등 가사노동도 남녀간에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부모들은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교육과 보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당연한 의무 및 권리로 생각한다. 스웨덴 정부도 16개월에 달하는 유급육아휴직(13개월은 소득의 80% 보상, 3개월은 정액제 보상)(Årsbok för Sveriges Kommuner, 2004)을 제공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제도'나 '탄력적인 근무

시간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부모의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Gunnarsson et al., 1999).

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른 보육의 수요 증가는 보육시설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급격한 시설의 증가속도에 못 미치는 보육시설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이기숙, 2004; Ka`rrby, 1999; McCartney, 2004; Sheridan, 2002). 보육의 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되고 있지만, 대개 구조적인 질, 과정적인 질, 서비스의 질 등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Donabedian, 1980; Munton, Mooney, & Rowland, 1995). 첫 번째, 구조적인 질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육의 질로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 학급의 크기, 교사의 교육 및 훈련수준, 보육시설의 실내·외 환경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과 학급의 크기 등은 보육예산 변화에 따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보육의 과정적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보육의 질 요소이다.

스웨덴에서는 보육시설의 구조적 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았으며, 정부 역시 보육의 질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보육의 구조적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규제는 스웨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Alock, 1996). 스웨덴의 보육시설의 구조적인 질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보육시설들의 인적, 물리적 환경은 구조적인 질의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Utbildningsdepartementet, 1999). 또한 스웨덴과 독일의 보육시설에 대한 비교연구에서도 스웨덴의 보육 시설의 교육 자료나 물리적 환경이 독일의 보육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eridan & Schuster, 2001).

둘째, 과정적인 질은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 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 교사와 아동 간·부모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활동 제공 등과 관련된 질이다(McCartney, 2004; Whitebook, Howes, & Phillips, 1990). 보육시설의 과정적 질은 아동의 학습 준비도, 인지, 학습, 사회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양육자, 즉 보육시설에서의 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은 아동의 사회 정서적인 기능에 주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인식되어 아동의 보육 경험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Vandell, 2004).

스웨덴 보육의 과정적 질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에서 교사들과 아동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았으며, 교사와 부모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 아동의 흥미와 요구에 적합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의 과정적인 질의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Ka`rrby & Giota, 1994; Sheridan, 1997; Tietze, Cryer, Barrio, Palacios & Wetzel, 1996).

셋째, 서비스로서의 질인데, 이는 새롭게 보육의 질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모의 관점에서 보는 개념이다. 즉, 부모를 시민 또는 고객으로 보고 부모

의 다양한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육시설의 주 이용자인 부모의 만족도는 서비스로서의 보육의 질을 평가하여 시설의 질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육서비스를 측정할 때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 시설의 배치 및 분포, 시설의 이용가능성, 운영시간, 부모의 자유로운 시설 선택권 등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현대적인 보육의 질의 개념인 서비스로서의 보육의 질은 공립 보육시설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스웨덴에서 보육의 질 평가의 항목에 부모 설문지를 통하여 그 만족도를 조사할 정도로 보편화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그 개념의 적용이 미비하나, 부모친화적인(parent-friendly) 가족 및 교육정책을 계획해 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Gunnarsson et al., 1999).

소비자 즉, 부모의 관점에서 보육시설의 서비스 측면의 질을 평가한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의 보육시설의 질에 대한 인식과 보육시설의 실제 질 측정 점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스웨덴의 부모들은 교사의 전문성 및 보육시설 모든 종사자들의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질을 가장 중시여기는 것으로 보고하였다(Ka'rrby & Giota, 1995).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처럼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직접 연구한 것은 아직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보육의 질에 대한 연구들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보육시설의 실태와 함께 보육의 구조적인 질을 평가한 연구가 많다. 이들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질 평가 주체에 따라서 구조적인 질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보고 되었는데, 교사가 평정한 보육시설의 질 점수가 높았으나, 객관적인 관찰자에 의한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유형 및 지역에 따라 구조적인 질 수준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희정, 1997; 이순형·이옥경, 2000; 정옥분·김숙령·권민균, 2004).

최근에는 보육시설의 단순한 구조적인 질을 연구하는 것 뿐 아니라 보육시설의 질과 아동 발달간의 관계를 연구한 보육의 과정적 질을 살펴본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이숙·오선영, 1999; 전춘애·이미숙, 2002; 최보가·문영경, 2004; 현은강·태진, 2000).

이에 비하여 보육의 서비스 측면의 질에 대한 개념은 여태까지 우리나라 보육시설에 관한 연구들이 위의 두 가지 보육의 질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중시되지 않았다. 부모 만족도를 통하여 보육시설의 실태를 알아보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들 연구들은 보육시설 환경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나 연구대상이 제한된 특징이 있으며, 보육의 서비스로서의 질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경필, 2003; 김지은, 1999; 남희정, 1997).

또한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스웨덴의 보육에 관한 연구들은 경험적 연구 보다는 주로 문헌조사에 의존하고 있다(양옥승·김영옥·김현희·박경자·위영희·이옥·이차숙·정미라·지성애·홍혜경, 1998; 이옥, 1996; 장미경, 1999; 정채옥, 2000). 이러

한 연구 보고들은 스웨덴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들로서 이론적 측면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아동과 교사간의 상호작용 유형 등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질적 교육 과정의 적용 현장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아직까지 스웨덴 보육시설과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질을 실증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과 우리나라 보육의 구조적, 과정적 질은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관찰, 조사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서비스 측면의 보육의 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스웨덴과 우리나라 어머니의 만족도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보육화가 이루어진 스웨덴의 보육시설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보육시설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의 질은 어떠한가?

1-1.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의 구조적 질의 차이는 어떠한가?

1-2.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의 과정적 질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 3.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시설로는 먼저, 스웨덴의 경우 21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진 예테보리(Göteborg)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6개 구역의 총 27개 프리스쿨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다. 스웨덴은 공보육이 90% 정도를 차지하므로 지자체 운영 시설을 표집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의 25개 구에 위치한 8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16개의 민간어린이집 등 총 24개 어린이집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보육시설이 더 많으므로 국공립 보육시설 대 민간 보육시설을 1:2의 비율로 표집 하였다. 이와 같이 총 51개의 시설이 ECERS 관찰대상 보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 어머니는 총 633명으로서 스웨덴의 경우, ECERS 관찰 대상 프리스쿨에 등록된 자녀를 둔 197명의 어머니들이었다.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어머니는 약 21%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 수 이었고, 나머지 79%정도의 어머니들은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졌다(표1 참조).

한국의 경우, ECERS 관찰 대상 어린이집에 등록된 자녀를 둔 총 436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어머니가 거의 40%였고, 나머지 60%정도가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였다.

&lt;표 1&gt; 국가별 어머니 교육수준

	스웨덴(n=197)		한국(n=436)		합계
	N	%	N	%	
고졸 이하	42	21.3	174	39.9	216
대학 졸업	72	36.6	229	52.5	301
대학원 이상	83	42.1	33	7.6	116

## 2) 측정도구

## (1) ECERS

보육시설 관찰 도구로는 Harms 와 Clifford가 개발한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1980)를 사용하였다. ECERS는 '유아교육 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정의를 통해 평가를 하도록 고안되었다. 환경은 유아교육시설에 있는 아동과 성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상호작용의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평점은 1(부적합), 3(최소), 5(양호), 7(우수)점 척도로 매겨지며, 중간점수인 2.46의 경우 보육시설의 질이 두 점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사용한다. 예를 들어 등원 및 귀가지도 문항에서 3점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관찰되었지만 5점에 해당하는 사항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평가 될 경우, 4점을 주게 된다. ECERS는 7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영역 별로 4~6개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하위 영역에는 생활습관지도, 비품 및 작품의 배치와 진열, 언어 및 개념추리 활동, 대·소근육 운동 활동, 창의성 활동, 사회성 발달, 교사배려와 부모 참여 등이 있다. 이러한 구성은 ECERS를 통해 보육시설의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이 얼마나 아동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와 아동 중심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ECERS 는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평가척도 가운데 실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도구 중 하나이며(Howes & Smith, 1995; Phillipsen, Burchinal, Howes, & Cryer, 1997; Cryer, Tietze, & Wessels, 2002),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내용이 범문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Peisner-Feinberg & Burchinal, 1997).

한편 1998년 Harms 와 Clifford는 Cryer에 의해 개발된 개정판 (ECERS-Revised Edition)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초판 ECERS를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초판 ECERS를 사용하였다. 영어판 ECERS를 가지고 스웨덴 교수들과 검사자 훈련 및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평정자간 신뢰도는 스웨덴 .92, 한국 .89이었다.

## (2) 보육 시설에 대한 부모 만족도

보육 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희정·강정희(2002)의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의견 조사에서 사용했던 '보육시설 활용 부모만족도 조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보육 프로그램, 보육비

용, 운영시간, 영양·건강·안전관리 측면 등 포괄적 측면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질문지는 스웨덴어 전공자의 도움을 받아 스웨덴어로 번역하였으며, 예테보리(Göteborg) 대학교 아동학 전공 교수(S. Sheridan)가 내한했을 때 스웨덴어와 영어로 번역된 부모만족도 척도 내용을 검토, 확인하였다. 질문지의 내용타당도는 스웨덴 교수 1인과 우리나라 아동학과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수 3인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 3) 연구절차

두 나라의 연구 대상 보육시설의 선정 절차로 스웨덴의 경우는 21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진 예테보리 지자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6개 구역을 추출하고, 각 구역에서 5곳씩 추천받은 총 30개 시설 중 연구에 참여수락을 한 총 27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설의 섭외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교육학부 아동학과와 예테보리 시청 보육담당 부서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에는 서울의 25개 구를 4개의 권역으로 분류하고, 각 권역을 다시 2개 지역으로 세분하여 총 8 지역으로 나누었다. 8개의 지역에서 임의로 1개 구를 추출하여 총 8개구를 선정하고 각 구에서 보육담당 공무원 및 보육시설연합회의 도움으로 각기 국공립 어린이집 1곳과 민간 어린이집 2곳을 추출하였다. 그리하여 최종 8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16개의 민간어린이집 등 총 24개 어린이집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두 나라의 보육 시설의 관찰 및 질문지 배부는 시설장의 협조를 받아 어머니 질문지를 각 반의 교사가 아동의 부모에게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스웨덴 보육시설의 질은 예테보리 대학교 교수 2인이 직접 ECERS를 이용하여 관찰, 평가했다. 보육시설의 관찰은 스웨덴의 경우 6주가 소요되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질은 본 연구자 2인이 직접 ECERS 이용하여 관찰 및 평가하였으며 약 4주가 소요되었다. 평가자간 신뢰도를 위해서는 2004년 2월 2일-2월 5일 본 연구자들이 스웨덴을 방문하여 이들과 관찰 방법이나 평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실제 프리스쿨 2곳을 함께 관찰,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보육시설 관찰 방법은 관찰자가 참여관찰의 형식으로 각 보육시설의 종일 프로그램 운영시간동안 관찰하면서 ECERS 평가표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질을 측정하였다. 원장과의 면담은 점심시간 중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간략한 면담을 하였고, 교사와는 아동이 등원하기 전 또는 아침 간식시간을 이용하여 몇 가지 질문을 나누는 형식을 취하였다.

질문지의 배부와 회수는, 스웨덴에 300부 배부하여 210부 회수하였으며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질문지 13부를 제외한 총 197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607부 배부하여 회수한 448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12부를 제외한 436부

를 분석하였다. 질문지의 회수율은 스웨덴 70%, 우리나라 74% 이었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성격과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두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사용하였다. 또한 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연구대상 보육 시설 방문 시 참여관찰 내용을 보조 해석도구로 사용하였다.

## II. 결과 및 논의

### 1.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구조적 보육의 질

<표 2>와 같이 학급당 유아의 수와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의 구조적 질을 t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 학급의 평균 유아의 수는 스웨덴은 19.5명 이었고, 우리나라는 18.7명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55$ , n.s.). 그러나 학급 당 교사의 수는 스웨덴은 3.3명 이었고, 우리나라는 1.3명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13.24$ ,  $p<.001$ ).

즉, 학급 당 유아의 수는 두 나라가 비슷했지만, 스웨덴에서는 학급당 평균 교사 3인이 팀티칭을 하므로(Gunnarsson et al., 1999)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스웨덴이 1:6 우리나라 1:18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았다( $t=-9.56$ ,  $p<.001$ ).

<표 2> 스웨덴과 우리나라 보육 시설의 교사와 아동

	스웨덴		한국		t
	M	SD	M	SD	
유아의 수	19.48	2.87	18.67	6.69	0.55
교사의 수	3.28	0.46	1.25	0.61	13.24***
교사 : 유아 비율	6.03	1.14	17.73	5.57	-9.56***

\*\*\* $p<.001$

보육의 구조적인 질에서 스웨덴의 보육시설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웨덴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3배나 낮아서 상대적으로 교사가 개별 아동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상호작용 또한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보육 시설의 구조적인 질의 향상이 필요함을 재확인하여 준다.

따라서 영유아가 엄마가 그리울 때 교사가 대신 안아주고 달래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현행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고 집단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스웨덴 교사들의 팀 티칭 방법은 한 학급 당 3명의 교사 및 보조교사들이 함께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볼 만한 좋은 사례이다.

### 2.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과정적 보육의 질

ECERS의 생활습관지도, 비품 및 작품전시, 언어개념 및 추리활동, 대·소근육 활동, 창의성 활동, 사회성 발달, 그리고 교사 배려와 부모 참여영역 등 7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스웨덴 프리스쿨 27곳과 우리나라 어린이집 24곳을 ECERS를 통해서 살펴본 전반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것같이 과정적 보육의 질에 대한 스웨덴의 27곳 프리스쿨의 평균은 4.47, 우리나라 24곳 어린이집의 평균은 2.94로, 스웨덴이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육 시설의 과정적 질 평균인 2.94는 7점 만점 중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2와 3 사이에 있어 3점인 최소한의 질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질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보인 것은 스웨덴의 보육시설과의 비교를 차치해 두고서도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두 집단간의 문항별로 비교를 해보아도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스웨덴의 보육시설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t 검증 결과 두 나라 간에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결 및 위생( $t=0.00$ , n.s.), 언어이해활동( $t=2.70$ , n.s.), 언어표현( $t=1.42$ , n.s.), 문화이해활동( $t=-0.73$ , n.s.), 부모참여문항( $t=1.39$ , n.s.)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전반적인 영역별 결과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습관지도 영역.** 스웨덴의 경우는 식사 및 간식 문항의 평균( $M=5.26$ )이 가장 높았으며 식사 및 간식( $t=6.95$ ,  $p<.001$ ), 휴식( $t=4.71$ ,  $p<.001$ ), 등원, 귀가 및 인사( $t=2.16$ ,  $p<.05$ )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청결 및 위생 문항에서는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없었다.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아동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한 음식의 선택이 아동에게 허용되고 있었다. 또한 식사 및 간식시간에 교사는 아동과 음식의 색, 수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교육적 활동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청결 위생 문항이 의미하는 바는 두 나라의 보육시설의 위생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보육시설 관찰기록과 비교하여 보면, 스웨덴의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실 바닥이 영아들이 기어다니고 아동들이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에 비하여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았으며, 아동들이 접시 없이 바닥에서 과일을 먹는 장면도 관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바닥의 오염이 심하

여 10시 정도만 되면 아동들이 아침에 신고 온 양말이 검게 변하였고, 화장실의 냄새와 위생 상태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비품 및 작품전시 영역.** 비품 및 작품 전시 영역의 점수는 스웨덴(M=4.80)의 결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M=2.39)에서는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이었다. 이 영역의 모든 문항에서는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t=3.17, p<.001$ ).

비품 및 작품 전시 영역은 두 집단간의 차이를 확연히 드러나게 하는 영역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웨덴과 다른 나라와의 보육시설을 비교한 선행 연구결과를 확인시켜주었다. 스웨덴과 독일의 보육시설에 대한 비교연구에서도 스웨덴의 보육 시설이 독일의 보육시설보다 영역별 실내 배치 등의 공간 사용방법, 교구 및 교재의 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Sheridan & Schuster, 2001). 그러므로 스웨덴의 보육 시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타국의 보육시설보다 아동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료와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육시설의 휴식용 비품의 구비는 두 집단간 차이가 많이 드러난 결과는 본 연구의 관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스웨덴의 프리스쿨은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것에 환경구성의 초점을 두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소파, 엄마의 품이 그리울 때 포근함을 대리만족 시켜 줄 수 있는 담요나 곰 인형 등이 각 방마다 배치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보육시설에서 아동이 계속 책상에 앉아서 구조화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교실내의 영역별 실내배치의 문항은 스웨덴이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는데, 이 결과는 스웨덴 보육시설이 충분한 활동 자료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아동이 서로 어울려 놀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과 일치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많은 보육시설에서 영역별 구성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활동 자료나 배치가 불충분하여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언어-추리활동 영역.** 이 영역은 모든 문항에서 스웨덴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지만, 개념학습 추리문항( $t=2.68, p<.05$ )과 일상적 대화( $t=4.23, p<.001$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와 아동과의 일상적인 대화 문항에서 스웨덴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구조적인 질을 가진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낮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횟수와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편, 언어이해활동, 언어표현 문항은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결과를 단순히 두 집단 모두 언어활동 수준이 비슷했다고 해석하기에는 두 나라간 활동 내용의 차이가 컸다. 즉, 위의 두 문항은 보육시설에서 아동에게 언어이해 및 언어표현의 기회와 내용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시설에서는 학습지 위주의 언어교육 활동 및 영어 특기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평가하기 어려웠고, 스웨덴의 경우는 교사와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한 언어표현 기회나, 교육목표에 따라 구성된 언어활동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두 나라간의 프로그램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대소근육활동 영역.** 영역의 모든 문항에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6.18, p<.001$ ). 이러한 결과는 실외놀이를 강조하는 교육내용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대부분의 프리스쿨에서는 잘 조직된 대·소근육 발달 영역 및 활동을 유아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들이 거의 매일 실외놀이를 하고, 빈번하게 자연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보육내용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창의성활동 영역.** 이 영역의 모든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것은 스웨덴 보육시설의 공간 배치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스웨덴의 프리스쿨에서는 영역별 배치를 방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아동이 미술이나 음악, 공간구성력을 길러주는 적목놀이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에서는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적목놀이같이 공간이 많이 필요한 활동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사회성발달 영역.** 이 영역에서는 문화이해활동( $t=-0.73, n.s.$ )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두 나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독립놀이 공간은 ECERS 전체문항 중에서 가장 유의도가 높은 문항이었다( $t=10.55, p<.001$ ). 이 결과는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1인당 한 평도 안 되는 면적에 따른 실제적인 이유와 더불어 개별 면적의 확보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이해활동 영역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과는 달리 연간교육활동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활동을 실행하는 것 때문일 것이다. 이 영역은 스웨덴에서는 증가된 이민 아동의 수로 인해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아직 그 실행이 다른 교육활동 영역에 비해 구체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교사-부모참여 영역.** 이 영역 역시 스웨덴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8.41, p<.001$ ). 그러나 문항별로 살펴보면, 부모참여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1.39, n.s.$ ), 교사를 위한 장소는 스웨덴이 우리보다 높았고( $t=8.28, p<.001$ ), 교사교육은 우리나라가 스웨덴보다 높았다( $t=-2.33, p<.05$ ). 교사교육 문항은 ECERS 전체문항 중에서 우리나라가 스웨덴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유일한 문항이었다( $t=-2.33, p<.05$ ).

교사를 위한 장소의 경우 스웨덴의 프리스쿨에는 별도의 교사 휴게실이 있고 그 안에 주방과 냉장고, 소파, 책장 및 테이블이 구비되어 교사들이 아동과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lt;표 3&gt; 스웨덴과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ECERS 문항별 결과

문항	스웨덴(n=27)		한국(n=23)		t
	M	S D	M	SD	
<b>생활습관지도 영역</b>	<b>4.45</b>	<b>1.08</b>	<b>3.29</b>	<b>1.01</b>	<b>3.94***</b>
등원 귀가 및 인사	4.56	1.12	3.92	1.02	2.16*
식사, 간식	5.26	1.11	3.08	1.18	6.95***
휴식	4.68	1.41	2.50	1.82	4.71***
청결 및 위생	3.67	1.52	3.67	0.96	0.00
<b>비품작품전시 영역</b>	<b>4.80</b>	<b>1.05</b>	<b>2.39</b>	<b>0.98</b>	<b>3.17**</b>
학습활동 재료 및 장소	4.44	1.25	2.37	1.28	5.84***
휴식용 비품	4.85	1.20	1.71	1.08	9.78***
영역별 실내배치	5.22	1.16	2.71	1.33	7.21***
작품의 진열 및 게시	4.70	1.26	2.79	1.44	5.04***
<b>언어 - 추리활동 영역</b>	<b>4.39</b>	<b>1.25</b>	<b>3.36</b>	<b>1.04</b>	<b>6.67***</b>
언어이해활동	4.56	1.42	3.58	1.10	2.70
언어표현	4.30	1.56	3.71	1.37	1.42
개념학습 추리	4.04	1.56	3.00	1.14	2.68*
일상적 대화	4.70	1.03	3.17	1.50	4.23***
<b>대소근육활동 영역</b>	<b>4.74</b>	<b>0.90</b>	<b>2.81</b>	<b>1.15</b>	<b>6.18***</b>
정교운동 활동 안내와 이용	4.56	1.12	3.21	1.35	3.89***
실내, 실외 대근육 활동	4.93	0.96	2.42	1.25	8.10***
<b>창의성활동 영역</b>	<b>4.54</b>	<b>1.02</b>	<b>2.85</b>	<b>0.91</b>	<b>7.01***</b>
미술활동	4.74	1.43	2.50	1.06	6.28***
음악	4.48	1.22	3.17	1.17	3.92***
적목	4.48	1.08	2.54	1.32	5.77***
극놀이	3.85	1.43	1.96	1.08	5.27***
활동계획	4.63	1.27	3.58	1.14	3.07**
자유놀이 상호작용	5.07	1.32	3.38	1.50	4.29***
<b>사회성 발달 영역</b>	<b>4.16</b>	<b>0.91</b>	<b>2.44</b>	<b>0.82</b>	<b>2.96**</b>
독립놀이 공간	5.07	1.21	1.54	1.18	10.55***
아동자주성	4.56	1.53	2.92	1.35	4.04***
그룹	4.89	1.25	2.54	1.18	6.87***
문화이해활동	2.11	1.12	2.33	1.05	-0.73
상호작용 질적인 인상	4.89	1.19	3.33	1.37	4.34***
특수아	4.43	1.69	2.00	1.14	5.71***
<b>교사 - 부모참여 영역</b>	<b>4.22</b>	<b>0.85</b>	<b>3.46</b>	<b>0.98</b>	<b>8.41***</b>
교사 장소	4.96	1.34	2.21	0.98	8.28***
교사교육	3.33	1.49	4.29	1.43	-2.33*
부모참여	4.37	1.12	3.87	1.42	1.39
합계	4.47	0.85	2.94	0.84	6.41***

\*p&lt;.05; \*\*p&lt;.01\*\*\*p&lt;.001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별도의 교사실 즉, 단지 회의 및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수준과 복지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친 교사가 잠시 쉴 공간 및 시간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아동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교사를 위한 환경의 부족은 결국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보육시설이 스웨덴보다 교사교육 면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연구 대상 대부분의 교사들이 연간 적어도 2회의 보수교육 기회를 제공 받는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참여문항에서도 두 나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가정통신문을 통한 부모참여 방법이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 3. 스웨덴과 우리나라 어머니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표 4>와 같이 스웨덴과 우리나라 어머니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점수를 구한 결과, 스웨덴 어머니 3.32, 우리나라 어머니 3.10으로 우리나라 어머니보다 스웨덴 어머니의 점수가 약간 높았다( $t=7.31, p<.001$ ).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만족도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서 3점 이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스웨덴은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교육비용'과 '시설설비'에 대한 항목에서 3점 이하의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모든 문항에 대해 스웨덴 어머니가 우리나라 어머니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t검증 결과 '안전관리'( $t=1.71, n.s.$ )와 '특별활동'( $t=.52, n.s.$ )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안전관리'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스웨덴의 보육시설과 우리나라 보육시설이 안전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가보다는 안전에 관한 부모들의 요구와 기대수준의 차이 때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이는 스웨덴에서 보육은 건강관리, 사회적 보호, 양육과 교수 등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데 비해(Skolverket, 2000) 우리나라에서는 보육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전인발달보다는 인지발달에 치중된 유치원 프로그램을 차용함으로써(양옥승·신현문·신은미·장선훈, 1996), 건강, 영양, 안전의 중요성이 등한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특별활동'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스웨덴에서는 특별활동이란 정규 활동 외의 과외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외부강사에 의한 학습지나 예체능 위주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문항은 문화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가 있는 문항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 집단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비용에 대해 스웨덴 어머니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단연 정부가 보육비용의 83%를 부담하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는 보육료 상한제도 때문이라고 해석된다(Skolverket, 2000). 이에 비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일부 저소득층 유아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거의 전적으로 보육료를 지불하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4> 한국과 스웨덴 어머니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스웨덴 (n=212)		한국 (n=435)		t
	M	SD	M	SD	
교육비용	3.12	.82	2.95	.57	3.19***
교사	3.56	.57	3.29	.50	6.18***
프로그램	3.38	.57	3.09	.47	6.68***
시설설비	3.04	.72	2.87	.60	3.18**
운영시간	3.51	.82	3.18	.49	6.31***
집과의 거리	3.60	.63	3.21	.65	7.24***
급·간식	3.35	.75	3.14	.55	4.18***
안전관리	3.19	.70	3.10	.54	1.71
특별활동	3.11	.76	3.08	.58	.52
합계	3.32	.38	3.10	.34	7.31***

\*\*p<.01; \*\*\*p<.001

둘째, 교사에 대한 만족도 역시 스웨덴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의 원인은 질 높은 교사를 배출하기 위한 스웨덴의 보육교사 양성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스웨덴 보육시설에는 한 학급에서 교사 3인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팀티칭을 하므로 교사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특기를 살릴 뿐 아니라 유아나 부모의 욕구를 좀 더 잘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Gunnarsson et al., 1999).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사의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학급 당 교사의 수를 높임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스웨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웨덴에서는 프로그램이나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Skolverket, 2000). 우리나라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부모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을 참관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차용하고 오후에는 외부강사에 의한 특별활동으로 일과를 구성하는 등 독자적인 보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가중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비형식적이고 유아중심적인 활동으로 일과를 구성하고, 유아에게 자연친화적인 활동과 실외 놀이를 강조하는 스웨덴의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보육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넷째, 시설설비에 대해 스웨덴 어머니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스웨덴에서는 이미 1990년대 이후 보육시설의 면적이거나 시설 설비 기준, 교구와 설비의 규격 및 안전성 등에 대한 규제가 이후 해제되었을 정도로 일정 수준을 넘은 상태라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이영·이기숙·박경자·정미라·김준경, 1995).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동 1인당 면적 등 시설설비 면에서 열악한 상태로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 역시 스웨덴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에 포함된 스웨덴 보육시설과 우리나라 보육시설이 모두 종일제 시설로서 운영시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보육시설의 물리적인 운영시간의 길이보다는 오히려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스웨덴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과 휴가와 '근무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적인 근무시간 제도'로 부모들의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줄여주고 있는 것이다(Gunnarsson et al., 1999).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보육정책을 입안할 때 보육을 보육시설을 통해 아동에게 교육과 보호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거리에 대한 만족도 스웨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스웨덴에서는 공보육이 근간을 이루며 대부분의 아동들이 집 근처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이 집 근처에 있으면,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고 자녀를 데리고 가고 오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 이점이 있다. 이외에도 아이들이 주말에 이웃의 친구들과 놀 수 있고, 부모들끼리도 이웃이라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며(Gunnarsson et al., 1999), 시설의 입장에서조차 방문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육시설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읍·면 지역 중에는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22.6%나 되는 등 지역적 편차가 심한 실정이다. 따라서(표갑수, 2004) 보육시설을 신설할 때에는 모든 아동이 근접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 간식 역시 스웨덴 어머니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웨덴 보육시설에서 점심 급식은 물론이고, 일찍 등원하는 아동에게 아침식사도 제공하며, 간식도 오후에 2회 제공하는 등 급, 간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보육아동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보육아동의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기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질 높은 급, 간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의 질과 보육시설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보육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웨덴 프리스쿨 27곳과 우리나라 어린이집 24곳을 대상으로 ECERS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총 633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보육 시설의 질 및 어머니의 만족도는 보육의 선진국인 스웨덴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우리나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적인 질에서는 스웨덴이 우리나라보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3배 낮게 나타나 높은 구조적인 질 특성을 보였다. 보육의 구조적인 질은 과정적인 질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하향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이 아동에게 편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서 유아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장소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모들은 유아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장소를 제공하는 보육의 역할을 하기를 가장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고 아동중심의 보육철학이 드러나는 '제2의 가정(a second home)' 같은 느낌을 주는 스웨덴 프리스쿨의 환경구성과 같이 우리 보육환경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보육의 과정적인 질은 스웨덴이 우리나라에 비해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높은 구조적인 질 수준은 교사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많고 아동중심적인 교육활동들이 제공되어 과정적인 질이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한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육의 과정적 질의 향상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격 수준을 높이며, 보수교육 기회의 증가가 요청된다.

또한 교사를 통한 보육의 과정적 질 제고를 모색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교사의 처우 개선이다. 교사의 피로는 보육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복지 뿐 아니라 교사의 복지도 고려하는 보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스웨덴 프리스쿨이 교사의 복지까지 배려하는 환경에서 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하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보육시설의 서비스적인 질 측면에서는 스웨덴의 어머

니들 우리나라의 어머니들보다 더 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보육의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의 수준이 높은 스웨덴 보육시설에 있어서 어머니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증가한 포괄적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면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 때에 아동 중심적이고 비형식적인 활동으로 아동이 놀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스웨덴의 질 높은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보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육의 질의 세 가지 측면 즉, 구조적, 과정적, 서비스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야 하며, 국가의 보육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의 질 차이는 국가의 보육비 부담률 83%인 스웨덴과 보육비 지원율 30%에 불과한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공보육화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의 보육비용 부담률을 늘리고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이 되도록 보조를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서울시와 예테보리시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육의 질이 더 열악한 것으로 보고 되는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료로 사용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 일 : 2004년 11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11월 30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1월 26일

#### 【참 고 문 헌】

고경필(2003). 보육시설 실내·외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성의 인식정도-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2), 141-153.

권혜진, 이순형(2001). 보육시설 집단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22(4), 201-212.

김지은(1999).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조사: 충청북도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중원인문논집**, 20집, 81-98.

남희정(1997).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강북 구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문희(2001). 국공립 유아교육 시설 경영개선 방안 모색을 위

한 공청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옥승·김영옥·김현희·박경자·위영희·이옥·이차숙·정미라·지성애·홍혜경(1998). **세계의 유아교육 제도**. 서울 : 양서원.

양옥승·신현문·신은미·장선훈(1996). 남북한 유치원과 보육시설 프로그램 비교. **사회과학연구**, 3, 183-203.

유희정 (1997).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른 질적 수준 분석**. 한국영유아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발표논문집. 323-345.

유희정·강정희(200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이옥·서문희·윤선영·최영신·강정희·주재선·이미화(2003). **보육사업의 공공화 및 다양화 실행방안 연구**. 여성부.

이기숙(2004). 보육시설의 질과 경험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결과를 중심으로. **삼성복지재단 제 12회 국제 학술대회: 영유아보육과 파트너쉽**, 215-246.

이숙·오선영(1998). 보육시설의 질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189-198.

이순형·이옥경(2000). 한국보육시설의 영아기 프로그램 운영평가. **한국 아동학회**, 20(1), 121-140.

이영·이기숙·박경자·정미라·김춘경(1995). **세계의 영유아보육**.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옥(1996). 스웨덴의 아동유아교육 제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187-202.

이옥(2000). 한국 영유아 보육 사업의 이념적 방향과 과제. **영유아보육학** 23집, 1-24.

이옥(200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의 질. **사회과학연구**, 8, 213-229.

장미경(1999). 유아교육 시설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 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례에 비추어. **여성과 사회**, 89-110.

전춘애·이미숙(2002). 보육시설의 구조적, 과정적 변인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15-124.

정옥분·김숙령·권민균(2004).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적 특성 평가에 기초한 보육의 질 제고. **대한가정학회지**, 42(6), 123-136.

정채옥(2000). 유아교육 제도의 발달 과정 고찰(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북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광신대학교 광신논총**, 9(1), 427-464.

최보가·문영경(2004).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과 영아의 사회, 정서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42(1), 39-51.

표갑수(2004). **공보육 구현을 위한 영유아보육법령의 개선방안**. 공보육발전협의회 6.24일 토론회 자료.

현온강·태진(2000).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적응 - 인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3), 25-42.

Alcock, S. (1996). *Quality systems in early childhood centres*.

- Blackwell travel study fellowship.
- Årsbok för Sveriges Kommuner. (2004). *Statistika Centralbyrån*. Sweden.
- Cryer, D., Tietze, W., & Wessels, H. (2002). Parents' perceptions of their children's child care: a cross-national comparis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7, 259-277.
- Donabedian, A. (1980). The definition of quality and approaches to its assessment. In A. Arbor, (Ed.), *Explorations in quality assessment and monitoring. Vol. 1*, Michigan: Health Administration Press.
- Gunnarsson, L., Korpi, B.M., & Nordenstam, U. (1999).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Stockholm: Sweden.
- Harms, T., & Clifford, R.M. (1980).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NY: Teachers College Press.
- Harms, T., & Clifford, R.M., & Cryer, D. (1998).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Revised Edition*. NY: Teachers College Press.
- Hofferth, S.L., & Deich, S.G. (1994). Recent U.S. child care and family legisl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15(3), 424-448.
- Howes, C. & Smith, E.W. (1995). Relationships among child care quality, teacher behavior, children's play activities, emotional security, and cognitive activity in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381-404.
- Kaärby, G. (1999). *Conceptions of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n analysis of rationales for the rating of quality with the ECERS*. Paper presented at the EECERA 9th European conference in Helsinki, Finland, September 1-4.
- Kaärby, G. & Giota, J. (1994). Dimensions of quality in Swedish day care centers-An analysis of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04, 1-22.
- Kaärby, G. & Giota, J. (1995). Parental conceptions of quality in daycare centers in relation to quality measured by the EC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10, 1-18.
- McCartney, K. (2004). The importance of child-care quality: What does the research tell us? 삼성복지재단 제 12회 국제학술대회: 영유아보육과 파트너쉽. 7-31.
- Munton, A. G., Mooney, A., & Rowland, L. (1995). Deconstructing Quality: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new paradigm in daycare provision for the under eight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14, 11-23.
- Phillipsen, L., Burchinal, M., Howes, C., & Cryer, D. (1997). The prediction of process quality from structural features of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281-303.
- Peisner-Feinberg, E.S., & Burchinal, M. (1997). Relations between preschool children's child-care experiences and concurrent development: The cost, quality, and outcomes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3(3), 451-477.
- Pestoff, V., & Strandbrink, P. (2002). *The politics of Swedish childcare. National report 2002*.
- Sheridan, S. (1997). *Evaluations of quality with the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A comparison between external evaluations and preschool teachers self-evaluations of quality with the ECERS*. Gothenburg university: Institution for pedagogik.
- Sheridan, S. (2002). A comparison of external and self-evaluations of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64, 63-78.
- Sheridan, S., & Schuster, K-M. (2001). Evaluations of pedagogical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25.
- Skolverket(2003). *Childcare in Sweden*.
- The Sweden Institute (2002). *Fact Sheets on Sweden*.
- Tietze, W., Cryer, D., Barrio, J., Palacios, J., & Wetzel, G. (1996). Comparisons of observed process quality in early child care and educational programs in five countri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447-475.
- Vandell, D. L. (2004). Child care effects on children's socio-emotional functioning: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삼성복지재단 제 12회 국제학술대회: 영유아보육과 파트너쉽. 121-145.
- Whitebook, M., Howes, C., & Phillips, D. (1990). *Who cares? Child care teachers and the quality of care in Americ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Child Care Staffing Study)*, Okland:CA. Child care employee project.
- Utbildningsdepartementet(1999). *OECD-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Stockholm: Utbildningsdepartementet.